

# 우리 나라의 救急治療에 關한 考察

— 特히 新撰救急簡易方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Emergency Treatments in Korean Classical Medicine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醫史學教室

李 英 澤

## I. 緒 言

救急治療라 함은 사람이 갑자기 生命의 위험을 느꼈을 때 우선 生命을 救하기 위한 應急處置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古典醫書中에는 이러한 「救急」이라는 두 자가 붙은 醫書가 몇가지 있다.

첫째는 高麗의 鄉藥救急方인데 初刊年代는 확실치 않으나 李朝 太宗 17年(1417年)에 重刊된 것이 꼭 한권 現存한다.

둘째는 世祖의 命으로 편찬된 救急方이 世祖 12年(1466年)에 八道로 頒布되었다 하나 지금은 佚書가 되었다.

셋째는 成宗 20年(1489年)에 刊行된 救急簡易方인데 筆者가 여기서 論하려는 것이다.

넷째는 燕山君 5年(1499年)에 尹弼商 등이 撰한 救急易解方이 있다.

다섯째는 金正國의 村家救急方이 中宗 33年(1538年)에 初刊되었다.

여섯째는 內醫院에서 만든 救急良方이 明宗 14年(1599年)에 治腫秘方과 함께 刊行되었다.

일곱번째는 許浚이 한글 번역을 첨가시킨 診解救急方이 있으나 刊行年代는 밝혀지지 않았다.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救急醫書들은 不幸이도 逸書가 된 救急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밖의 것들도 겨우 한 두 卷씩 만이 남아 있을 뿐인데 그것조차 救急簡易方을 除外하고는 모조리 日本에 秘藏되어 있는 實情이므로 筆者는 지금까지 발견된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救急簡易方 第一卷과 通文館이 소장한 第六卷을 中心으로 本論에 對한 考察을 試圖하려고 한다.

## II. 救急簡易方の 成立

成宗實錄에 依하면 「成宗 20年(1489年) 5월에 內醫院 提調 領教等, 尹壕 등이 新撰 救急簡易方 9卷을 進하므로 諸道監司로서 印刊케 하여 諸邑에 廣布케 했다」하고 또 그 해 9월에는 「內醫院이 新撰 救急方을 進하

므로 提調인 尹壕, 任元濬, 許琮에게 各各 馬裝, 鎧口, 蓑衣하나씩을 即應 尹師夏以下에게는 鹿皮 한 張씩을 下賜했다」라고 記錄되고 있어 救急簡易方은 1489년에 成立되어 各道에도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萬曆 13年(1585年)版 改事撮要에도 八道冊板中에 原州, 全州, 南原, 浹川, 昆陽의 各地에 救急簡易方の 板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各地方에서까지 刊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 三木은 그의 朝鮮醫書誌에서 黃義敦, 李仁榮, 末松 등이 總 9卷 9冊中 오직 第三卷, 四卷, 六卷, 七卷을 각자가 소장하고 있거나 보았다는 事實을 밝혔을 뿐이므로 第一卷, 二卷, 五卷, 八卷, 九卷은 아직 未發見 상태에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 著者が 본 서울大學校 所藏本은 원래 方鍾鉉이 가졌던 것으로 第一卷이고 序文을 비롯하여 救急簡易方の 總目錄이 첨가되어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事實보다 좀 더 새롭고 精確한 知見을 얻을 수 있었다. 即 總 9卷인 것으로 알았던 本方書가 實은 8卷으로 끝난다는 事實인데 許琮이 쓴 救急簡易方の 序文에도 「凡爲卷八 爲門一百二十七」이라 했으며 目錄에도 卷之八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序文에서 밝힌 刊行年代 弘治 2年 己酉 9月 上辭도 實錄의 成宗 20年 9月과 一致한다. 그리고 第六卷인 通文館所藏本은 黃義敦으로부터 入手한 것이라 하는데 前記한 三木의 朝鮮醫書誌에 言及된 것과 同一本이 아닌가 싶다.

救急簡易方の 發刊動機는 醫師가 없는 偏州 下邑이나 窮鄉 僻村에서 갑자기 病者가 생겼을 때 그 生命을 救하지 못하고 죽는이가 많으므로 비록 婦女子나 兒童들이라도 책을 펴서 곧 治療法을 찾아보고 病을 고치기 위해 한글 번역까지 곁붙여 만들었다고 序文에 밝혀져 있어 當時의 保健政策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

## III. 救急簡易方の 內容

救急簡易方 全體의 內容을 完全히 알기는 現下의 形便

으로 보아 大端히 어려운 일이나 다행히 그 內容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는 總目錄이 있으므로 이것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卷>

中風 中寒 夏月熱死 中氣 五絕死 卒死 自縊死 溺死 木石厥死 夜斃死 冬月凍死 白虎風 諸風癘 傷寒時疫 煩熱少睡

<第二卷>

頭痛 卒咳嗽 心腹痛 卒腰痛 絞腸沙 霍亂 咽喉腫 纏喉風 噎塞 失音 舌腫 鼻衄 吐血 九竅出血

<第三卷>

口瘡 唇口緊 面上生瘡 腮腫 失欠顏車 蹉喉 丁瘡 背腫 走馬疔 丹毒 便毒 大小便不通 大便不通 小便不通 大小便血 尿血 諸淋 夜多小便

<第四卷>

癰疽 陰縮 外痔 脫肛 泄瀉 赤白痢 目珠子突出 眼卒生翳膜 物入眼 耳痛 百虫入耳 物入耳

<第五卷>

蟲毒 六畜肉毒 一切魚毒 諸藥毒 砒霜毒 一切草毒 一切菜毒 金瘡 打撲傷損 湯火傷 杖瘡 凍瘡 漆瘡 手足裂

<第六卷>

骨鯁 誤吞針類 誤吞金銀 誤吞竹木 針刺折肉中 虎傷 風犬傷 常犬傷 毒蛇傷 諸惡虫傷 蜈蚣咬 蜂蠶毒 蜘蛛傷 蚯蚓咬 馬咬 猪咬 猫咬 鼠咬 破傷風 紫白癩風 治癩痕

<第七卷> : 婦人門

妊娠中風 妊娠心腹痛 妊娠大小便不通 妊娠咳嗽 兒在腹中哭 子死腹中 難產 胎衣不下 產後血不止 產後血不下 產後腸出 乳癰 浮汗不下

<第八卷>

生不氣絕 大小便閉 遍身無皮 臍腫 口出白沫 不飲乳 吐乳 口噤不開 重舌 口瘡 牙疳 驚癇 夜啼 痘瘡陷入 痘瘡 黑陷 痘瘡入眼 痘瘡爛 客忤 腦後有核 陰囊腫

위의 目錄에도 나열된 第一卷과 第六卷의 內容을 病名과 症狀을 中心삼아 具體的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治療法을 한 가지씩만 原文 그대로 들어 보기로 한다(但 한글마춤법에 따라 철자법과 띄어쓰기를 고쳤음).

<第一卷>

中風(갑자기 바람 맞은 병)

바람 맞거든 참기름이나 새알즙을 입에 부어 토하면 즉시 깨리라.

中寒(찬기운 사와 맞은 병)

찬 기운이 사와 들어 배 아프거든 소금 큰 한줌을 물과 함께 많이 먹여라. 문득 토하면 즉시 좋으리라.

夏月熱死(여름에 더위 먹어 죽은 이)

더운 바람 맞아 말 못하며 인사 못차리거든 더운 물

을 마시는 것도 좋으며 또 조금 마른 새알과 꿀꺽질과 감초를 넣어 끓여 조금씩 먹이되 갑자기 과음 시키지 말라. 또 더운 흙과 재를 볶아 배꼽위에 올려 둠이 좋으리라.

中氣(노한 기운을 퍼져 못하여 난 병)

중기하여 눈감고 말뚱하고 내 활개 쓰지 못하고昏昏沈沈한 證에 木香을 갈아 한 돈씩 冬瓜 끓인 물에 풀어 먹여라.

五絕死(卒死 自縊死 溺死 木石厥死 夜斃死의 다섯가지 원인으로 죽은 이)

죽은 사람의 가슴이 따뜻한 이는 다 살릴수 있을 것이라. 끼무릇(半夏) 뿌리를 더운 물에 일곱번 씻어 갈아 콩만하게 비벼 콧구멍에 넣어 들어가게 하라. 재채기 하면 즉시 살리라.

卒死(갑자기 죽은 이)

갑자기 죽어 脈 없는 이를 소를 이끌어 코에 대고 이백번을 숨 쉬게 할지니 소가 핏으면 반드시 좋으리라. 소가 핏지 아니하거든 소금물을 낮에 바르면, 소가 핏으리라.

自縊死(절로 목매어 달아 죽은 이)

아무 것으로나 두 귀를 막고 대롱을 입에 넣어 두사람이 몹시 불되 입가를 막아 기운이 나가지 못하게 하라. 반날(半日) 죽었던 사람은 곧 숨쉬리니 숨쉬거든 부지 말라.

溺死(물에 들어 죽은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기운이 그쳐 몸이 차고 손발이 뻣뻣하고 가슴이 따뜻한 이는 가히 살리니와 찬 이는 살지 못하리라. 물에 죽은 사람의 가슴이 따뜻하거든 먼저 사람으로 안아 머리를 조금 위로 쳐다보게 하고 입으로 죽은 사람의 코를 빨아 누런 물을 내고 또 숨으로 허리 아래와 음낭을 싸 덥게 하면 즉시 살리라. 만약 숨이 없거든 재(灰)로 몸을 다 묻되 낮만 밖으로 나오게 하고 머리를 쳐다보게 하여도 가히 살리라.

木石厥死(나무와 돌에 눌려 죽은 이)

높은 데서 떨어 지거나 나무, 돌에 눌려 한결같이 상하여 피가 안으로 어리어 아프거든 大黃 한 량을 술에 잠겨 두었다가 찌고 살구씨 속씨 일곱알을 꺼플과 부리(尖)없애고 가늘게 갈아 술 한 사발에 달여 반 남직 하거든 찌꺼기 없애고 닭 울때에 먹이면 새벽에는 어린 피(瘀血)가 나리라. 만약 심하게 상하여 기운이 그쳐 말 못 하는 줄을 갑자기 알아 藥 곧 미쳐 못할 양이면 빨리 입을 벌려서 더운 오줌을 부으라. 腦骨이 깨어지고 骨折된 이는 파밀린부분(葱白)을 가늘게 썰고 꿀에 섞어 상처에 두겹게 붙이면 좋으리라.

夜斃死(밤에 가위 눌려 죽은 이)

자다가 가위눌려 깨지 않거든 잠간이라도 불켜지 말

라. 켜면 죽이나니 오직 낮에 칠패고 또 엄지발톱밑을 아뜨게 물면 즉시 깨리라. 붓털 끝으로 콧 구멍을 찌르되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을 하고 뒤척이면 즉시 일어 나리라.

冬月凍死(겨울에 얼어 죽은 이)

겨울에 얼어 죽은 이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중 조금 기운 있는 이를 젖은 옷은 벗겨 버리고 산 사람이 입은 더운 옷을 벗겨 꾸리고 쌀을 볶아 덥게 하여 심장 쪽을 다리고 또 부엌의 재를 볶아 덥게하여 자루에 넣어 심장 쪽을 다리되 차가운 것 같아 더운 기운이 통해 따뜻하게 하고 더운 술이나 새알 끓인 물이나 죽물을 조금 입에 부으면 살리라.

白虎風(물고루 쓰서 아픈 병)

력절풍병(歷節風)하여 온 마디가 아파 참지 못하거든 범의 앞허뼈(虎脛骨) 한량을 수유를 발라 불에 누르게 찍인것과 부자(附子) 한량을 합하여 종이에 싸서 물에 저쳐 구어서 거품을 버끼고 찜은 후 가늘게 쳐서 따뜻한 술에 풀어 끼니 하지 말고 한 모금씩 먹여라. 조한 초(醞醋) 닳되를 세번이나 다섯번 끄리고 파 뿌리를 썰은 것을 합하여 한 두번 끄러서 헌접으로 싸서 아픈데를 다려 주면 가장 좋으리라.

諸風癩(여러가지 경간)

마음이 덥달아 여러가지 경간병 하거든 검은 나귀 젖을 밤 위에 데워 세 홉씩 먹되 하루 두 번씩 하라. 여러가지 경간병에 좋은 주사(辰砂)를 많으나 적으나 가늘게 갈아 돼지의 엄통의 피로 고루 섞어 밀가루로 만든 증편(蒸餅)에 싸서 찌 익거든 더울때 내어 머귀 열매 크기의 丸을 만들어 밤먹은 뒤와 누울때 一丸씩 人蔘끓인 물에 먹여라.

傷寒時疫(찬 기운으로 발열하는 병)

무릇 시기병이거든 보름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를 가늘게 썰어 물에 끓여 목욕 감어라. 時氣病 앓은지 하루가 되었으면 땀내는 것이 마땅하니 이를 사흘이라도 땀내는 것이 또 좋고 나홀이면 땀하고 닳으면 설사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煩熱少睡(마음이 어지럽고 덥달아 잠 못자는 병)

마음이 어지러우며 답답하거든 영경화(野紅花)의 음과 뿌리를 깃두드려 잔즙을 먹으며 또 물에 달여 먹여라.

<第六卷>

骨鯁(뼈가 목에 걸린 것)

무릇 가시 걸려 고치는 법은 다 제각기 종류에 따라 할지니 가마우지(鷓鴣)는 물고기 가시 걸린데 고치고 指南石은 바늘 걸린데 고치고, 머리털 태운 재는 머리털 걸린데 고치고, 삼쟁이와 범은 뼈가 걸린 데를 고치니 각각 자기의 유(類)를 좇아 하라. 옛으로 달걀의

노란자 만하게 丸을 만들어 삼키라. 낮지 않거든 다시 먹되 점점 크게 하여 열丸만 하고 말라.

誤吞針類(바늘을 모르고 삼킨 이)

바늘을 모르고 삼켰거든 바늘 붙는 지남석 가루를 한술만 물에 풀어 먹으면 즉시 내려 가리라. 가장 좋은 지남석을 작은 탄자(彈子)만큼 크게 하여 머금고 있으면 즉시 나오리라.

誤吞金銀(금이나 은을 모르고 삼킨 이)

은가락지나 비너를 모르고 삼켰거든 水銀 한량을 나누어 먹으면 곧 내려가리라. 또 좋은 분(胡粉) 한량을 쥘어 풀어 두번에 나누어 먹으면 삼킨 은을 나오게 하리라. 후시 금이나 은을 삼켜 배 안에 있거든 다 이약을 먹으면 녹아 나오리라. 백부근(百部根) 넉량을 술 한되에 담가 하룻밤 재워 마스게 하여 두번에 먹어라.

誤吞竹木(대나 나무를 모르고 삼킨 이)

오래된 톱을 빨강게 태워 술에 넣어 더울때 먹여라. 針刺折肉中(바늘이나 가시가 살속에서 부러진 이) 쌍 살구씨를 무르게 쥘어 수레 기름(車脂)에 섞어 바늘 든 곳에 붙이면 그 바늘이 질로 나오리라. 유향을 갈게 갈아 붙이고 그 위에 종이를 붙여 고정시키면 그 바늘이 즉시 나오리라.

竹木刺入肉中(대가시나 나무가시가 살에 박힌 이)

대가시나 나무가시가 살에 들어 있거든 버드나무 위에 돋은 버섯 달인 물을 점점 먹으면 그 가시가 질로 나오리라. 파밑 흰데를 소금 섞어 쥘어 붙이면 즉시 나오리라.

虎傷 附狼傷, 熊傷(범에 물렸을때, 이리와 곰에 물렸을때)

월경수 문은 것을 살아 가루를 상처에 붙여라. 쇠를 길고게 끓인 물로 물린 데를 씻으라. 곰과 범에게 물린데는 좋은 淸酒로 헌데를 씻고 굵은 마늘을 쥘어 좁내어 바르고 또 마늘과 술을 먹여라.

風犬傷(미친개에 물린 이)

범의 치아나 뼈를 갈아 한 술을 먹으라. 두꺼비 사른 재를 죽물에 먹으라.

常犬傷(보통 개에 물린 이)

빨리 바람 없는 데서 물린 구멍의 피를 닦고 그 구멍이 마르거든 침을 놓아 피를 내고 오줌으로 씻어 깨끗하거든 더운 쇠똥을 붙여라. 또 염교를 석회에 섞어 쥘어 떡을 만들어 그늘에 말려 갈아 붙이거나 다시 生地黃 뿌리나 地榆뿌리나 염교나 새알이나 한 가지를 쥘어 잔 즙을 먹여라. 개에 물려 피가 그치지 않거든 빨리 사탕을 바르면 즉시 좋으리라.

蛇傷(뱀 물린 이)

뱀에 물리거든 사람의 똥을 두더이 바르고 형겅으로 싸두면 즉시 독이 없으리라. 물린 곳에 여자가 오줌누

개 하라. 암태지의 귀에지를 붙여라.

諸惡虫傷(여러가지 모진 벌레에 물린 이)

참기름에 차조기를 담가 두고서 발라라. 수리날 백반 한 무더기를 일부러 벌레 쪼이되 저녁에 거둬 두었다가 무릇 온갖 벌레에 물려 헌데에 이 가루를 붙임이 좋으리라.

蜈蚣咬(지네 물린 이)

거미 한마리를 지네 물린 곳에 놓아 절로 그 모진 기운을 빨게 하라. 거미 죽고 아픔이 그치지 않거든 다시 산 거미를 두라. 수탉 벼슬의 피를 바르면 즉시 좋으리라. 닭똥을 사라 술에 타서 붙이면 좋으리라. 또 닭똥을 초에 타서 붙여라.

蜂蠶毒(벌에 쏘인 이)

이똥을 굵어 발라라. 사람이 갓 눈 오줌으로 씻어라.

蜘蛛傷(거미 물린 이)

거미 물린데 사람의 오줌을 바르며, 또 기름 쪼개기를 붙이며 또 새앙을 구워 붙여라. 양젖을 물린데 붙여라. 또 닭은 기름을 바르면 즉시 나으리라.

蜥蜴咬(지렁이에 물린 이)

지렁이에 물려 그 모양이 큰 바람맞은 사람 같아 눈 십과 수염이 다 떨어지거든 길게 꿇인 소금 물에 몸을 두어번 담고 다시 소금물 한 통발을 먹음이 좋으니라.

馬咬(말에 물린 이)

말에 물리며 밝힌 사람이 상처에 독이 들어 붓고 열이 있고 아프거든 외토리 밤 사룬 재를 물린데 바르면 독을 내 쫓으리라. 말 채찍 사룬 재를 붙여라.

豬咬(돼지에 물린 이)

돼지 물린데 송진을 달혀 떡 만들어 붙여라.

貓咬(고양이에 물린 이)

늪은 쥐똥 사룬 재를 참기름에 섞어 바르면 즉시 나으리라.

鼠咬(쥐에 물린 이)

고양이 똥을 물린데 바름이 가장 좋으리라. 고양이 수염 하나를 사룬 재를 발라라.

破傷風(헌데 바람들인 이)

매미 허물을 많으나 적으나 가루를 만들어 파의 침(葱涎)에 섞어 헌데에 발라 즉시 惡水를 없게 하면 좋으리라. 굴조개 가루를 상처에 붙이고 또 그 가루를 두돈만 감초 달인 물에 풀어 먹어라.

白濁風(흰 어루러기)

附紫澀(붉은 어루러기)

술에 날 참기름(生胡麻油) 한 홑을 하루 세번씩 먹되 조금 조금 더 먹어 다섯 홑을 먹고 날 것, 찬 것, 돼지, 닭, 물고기, 마늘을 백일동안 먹지 말라. 기름 다섯말을 먹으면 좋으리라. 수은으로 자루 문질러 덮게 하면 즉시 없어지리니 낮거든 말라. 유황 한량반과 좋은 먹

(新墨) 한량반을 헌데 분갈이 갈아 생배(生布)로 어루러기를 문질러 조금 헹거든 醋에 섞어 고약같이 하여 바르라. 헐리니(作瘡) 낮지 않거든 다시 발라라. 붉은 어루러기에 옹황 七錢半과 硫黃 七錢半과 白礬 한량을 헌데 갈아 粉갈이 하여 돼지 기름에 고루 섞어 하루 세번씩 발라라.

治癩瘡(힐었던 허물을 고침)

헌데 허물 없게 할려면 돼지 기름 세斤을 烏鷄 한 마리에 三日간 다 먹여 흰똥 누여 白礬와 當歸 각 한兩에 넣어 달여 白礬빛이 누렇게 되거든 쪼개기를 없애고 매똥(鷹屎) 흰것 반兩을 넣어 고르게 섞어 붙이되 하루 세번씩 붙여라. 헌데 허물이 오래 되고 안되고물다 없게 할려면 달걀 다섯 일곱개를 꼭 삶아 노란자를 술안에 볶아 검은 기름같은 고약이 되거든, 먼저 문질러 허물이 헹거든 붙이되 하루 두 세번 붙이면 절로 허물이 없어 옛살과 다르지 않으리라.

#### IV. 總括 및 考察

救急簡易方の 第一卷은 目次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疾病보다도 特히 生命이 危急한 境遇를 當했을 때의 處治法이 記錄되어 있다. 中風, 中寒, 中氣는 서로 다른 原因에서 생긴 疾病인 듯이 적혀 있으나 實은 腦出血이나 腦血栓으로 생긴 것으로서 흔히 中風(卒中風 또는 卒中)이라고 부르는데 옛부터 病中에 가장 큰 病이라 하여 醫書의 첫머리를 장식 하였다. 症狀은 입과 눈이 돌아가고(口眼喎斜) 입을 못 벌리며(口噤) 말을 못하고(失言不語) 人事不省에 빠진다. 또 腦出血일 경우는 경련을 수반하거나 死亡하는 일이 많고 腦血栓에는 半身不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救急簡易方 本文의 中風 條에는 中風에 따른 이러한 여러 症狀을 치료하는 법까지 近 60이나 되는 가장 많은 數의 處方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便宜上 各項에서 하나씩을 골라 引用했다. 여기에 보면 嘔吐를 시켜 意識을 恢復 시킬려고 한 것이 그 頂點으로 되어 있는데, 一時的인 目的은 달성했을지 모르나 根本治療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五絶死는 卒死, 自縊死, 溺死, 不石厥死, 夜驚死等 다섯 가지의 기이한 죽음(絶死)을 일컫는데 가슴이 따뜻한 이는 다 살릴 수 있다고 했다. 卒死는 別안간 죽는 것으로서 本文에는 中風 다음으로 많은 紙面을 割愛하였으나 주로 窺구명을 자극시켜 覺醒시키는 治療法이 나열되었다. 自縊死에도 意識을 회복시키려는 여러 方法이 있는데 위에 引用한 바와 같이 人工呼吸을 연상시키는 方法이 주로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溺死에는 우선 물을 吐하게 한 뒤에 몸을 띄게 하고 입

으로 呼吸을 시키는 方法이 열거 되었다. 木石 獸死는 나무나 돌에 눌려 다친 경우인데 이 밖에도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牛馬에 차이거나 밧혀 外傷을 입은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萬若 骨折이 되었다면 葱白(파의 밑둥) 部分을 가늘게 하여 끝에 섞어 傷處에 두 겹게 붙이는 처방도 사용되었고 또 皮下出血의 경우에 大黃 등이 消炎藥으로 언급되어 있다. 자다가 가위에 눌린 夜寢死인 경우 환자의 환경을 급격히 변화 시키지 말것을 강조하면서 엄지 발가락 밑을 아프게 깨물든가 아니면 자극성 있는 液이나 가루로써 콧 구멍을 자극시켜 意識을 恢復시키도록 했다.

夏月 熱死와 冬月 凍死에는 한결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治療法이 많다. 前者의 경우엔 새알과 굴 깍질, 감초 등을 끓인 물을 먹이고 배와 가슴을 따뜻하게 하도록 했으며, 찬 물을 못마시게 하였고 後者의 경우에는 감각이 덜게 하지 말고 천천히 熱을 높이도록 하는데 特別히 心臟部位를 따뜻하게 하는데 注意를 기울였다.

白虎風 또는 歷節風은 뼈마디가 아프거나 잘 놀지 않는 것으로 多發性關節炎이나 骨膜炎 또는 骨髓炎 등에 該當하는 것 같다. 이 病에는 견딜 수 없는 痛症이 수반하므로 그 原因의 하나라고 생각된 風邪를 쫓아 鎮痛을 시키기 위해 附子가 사용되었다. 또 아픈곳에 食醋를 바르고 따뜻하게 하였다.

風癇 또는 驚癇은 어린 아이들이 놀라 發作하는 癇疾을 일컫기도 하나 여기서는 어른의 癇疾까지 포함시킨 여러가지 癲癇을 뜻하고 있다. 發作 前驅症勢에 따라 雜多한 處方이 나열되어 있고 朱砂, 人參, 芩 등이 사용되었다.

傷寒時疫은 傷寒病과 時氣病 또는 時疫, 天行病 등을 總稱하는 것으로서 一般적으로 高熱을 同伴한 熱病을 일컫기 때문에 腸티프스나 流行性感氣에 해당한다는 說이 있다. 여간 해서 잘 낫지 않으므로 發汗, 嘔吐 및 下劑 등에 관한 投藥 以外에 雜多한 治療法이 提示되어 있다.

煩熱少睡는 病이라기보다 不安, 근심, 걱정 및 熱性疾患에 따르는 症狀 등을 말하는 것 인데 영경취뿌리(野紅花), 菖뿌리(葛根), 삼주뿌리(白朮) 등을 달여 먹여 解熱과 마음의 安靜을 일게 했다. 第六卷은 그 내용을 크게 나누면 異物을 잘못 삼켰거나, 거기에 걸렸을 경우와 짐승과 곤충에게 물렸을 때의 治療法으로 構成되어 있다. 特別히 動物로 인한 傷處의 治療法에는 그 動物과 서로 相剋을 이루는 動物의 뼈나 排泄物을 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본다.

그 例로서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잘 잡아 먹기 때문에 물고기 뼈에 걸렸을때는 가마우지가 效果 있으리라고 믿어 가마우지 뼈를 갈아 먹었으며, 개에게 물리면 繩의 齒牙나 뼈 가루를 먹고, 뱀에는 돼지의 鬃에지를

바르고, 지네(蜈蚣)에 물리면 닭 동을 태워 술에 섞어 붙이고, 쥐에게 물리면 고양이 똥을 바르는 경우이다.

또 독은 나무를 잘 베므로 竹木을 잘못 삼켰을 때는 목은 톱(舊鋸子)을 붙게 달구어 넣은 술을 마신다든가 말(馬)에 물리면 말을 모는 채찍(馬鞭)을 붙사른 재를 붙이는 따위도 그와 비슷한 思考에서 나온것 같다.

그리고 바늘이나 못을 잘 못 삼켰을 때는 磁石 가루를 마시고, 銀으로 된 돈, 가락지, 비너 등을 삼켰을 경우는 水銀을 먹게 했다.

곰이나 범에게 물렸을 때는 먼저 좋은 清酒로 傷處를 씻고 굵은 마늘의 즙을 바르며, 뱀이나 여러 가지 害虫에 물렸을 때는 人糞, 人尿, 齒垢 등을 사용케 했는데 이러한 行爲는 消毒과 消炎 및 毒을 中和시키는 데 어느 程度 效果가 있었을 것 같다.

破傷風은 所謂風이 傷處를 通해 몸에 들어온 듯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風을 除去하는 여러가지 藥物을 사용하였는데, 매미 허물 밖에도 굼병이, 굴조개가루, 수컷의 새똥, 갓난 누에 나비 가루 등도 쓰여졌다.

白癩風이나 紫癩에는 硫黃, 水銀, 白礬, 雄黃 등 藥物性藥物이 使用되었다.

癩痕을 治療하기 위해서는 달걀이나 기름 등이 使用되었다.

## V. 結 語

筆者는 15世紀末葉(1489年)에 刊行된 新撰救急簡易方의 書誌學的考察과 아울러 그 內容을 살펴 봄으로서 過去 우리나라 사람들의 救急治療에 對한 知識의 一端을 밝히려고 했다.

먼저 書誌學的인 考察에서 新撰救急簡易方은 지금껏 알려진 바와 같이 모두 9卷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8卷이라는 새로운 事實이 發見되었다.

다음 內容에 있어 8卷中 지금껏 發見되어 入手可能한 第一卷과 第六卷 두 卷만으로 全體를 評할 수는 없으나 第一卷의 總目次를 通해 보건데 內科, 外科, 產婦人科, 小兒科疾患 등이 주로 言及되었고, 그밖에 耳鼻科, 眼科疾患 등이 조금씩 散見되는데 모두 日常生活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들이다.

治療法은 손쉽게 求할 수 있는 藥劑를 使用한 應急治療에 局限되어 있으므로 주로 單方이 많이 쓰였고 中風, 卒死, 傷寒等 難治病일 수록 理治에 맞지 않는 雜多한 藥物이 使用되었으며 물에 빠졌거나 外傷을 입었을 경우에는 비교적 效果가 있을 듯한 治療法이나 藥物을 經驗으로 알고 있었으나, 극히 原始的이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Emergency Treatments in Korean Classical Medicine

—Particularly on Revised Synopsis of Emergency Treatments (新撰救急簡易方)—

Yung Taik Lee, M.D.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In olden days of Korea the government published, as a kind of public healths activity, medical books for those living in rural secluded areas where no medical man was available.

In the medical books thus published are included seven kinds of handbooks on emergency treatments. Most of them, however, have been lost or are now in the custody of the Japanese authorities.

As to "Revised Synopsis of Emergency Treatments," we are fortunate to have found the 1st and 6th volume in Korea out of the whole 8 volumes and to be able to survey, though roughly, what was the emergency treatments in those days.

The 1st volume consists of the general table of con-

tents and the treatments on apopleptic crisis, sudden interruption of respiration, high fever and so on which endanger human life. In the 6th volume are lined up the treatments in cases that men swallowed foreign bodies or are sticken by them and that men are bitten by wild or domestic beasts and others.

Looking around the general contents, in this handbook are mostly described on medical, surgical, gynecological and pediatric diseases and a little bit on E. N.T., ophthalmological and dental diseases, all of which are those customarily seen in our daily lives.

For the treatments were applied mostly the simple remedies which were easily obtainable. The treatments for apopleptic crisis, sudden interruption of respiration, high fever are unreasonable and miscellaneous. However, in cases of drawing and trauma they knew through experiences the treatments and drugs which seem to be comparatively effective.

### 參 考 文 獻

- 1) 金斗鍾 : 韓國醫學史, 1966.
- 2) 三木榮 : 朝鮮醫學史, 1956.
- 3) 三木榮 : 朝鮮醫書誌, 1956.
- 4) 刈米, 木村 : 最新和漢藥用植物, 1961.
- 5) 木村, 木島 : 藥用植物學各論, 1956.